

초등의대반 방지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발언문

2024.7.1

제 1 발언(교사)

한성준 교사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배밀이를 하는 아기에게 일어나 뛰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엄마 젖을 먹어야 할 아기에게 된밥을 먹이는 부모도 없습니다. 이는 너무도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이 땅의 학생들에게는 상식처럼 요구받고 있습니다.

초등 5학년에 고2 과정을 마치는 초과속 선행학습을 학생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상식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건 거의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선생님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급 아이 중에 체험학습을 쓰고 결석한 학생이, 하교하는데 교문 앞에서 학원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빠지고 그 시간에 알바를 하는데 그것도 학원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학교가 뭘지, 교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반고 고3 교실, 이 더위가 가고 9월쯤 되면 교실에 몇 명의 학생이 학교 수업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좋은교사운동이 민형배 의원실과 22년에 설문한 자료에 따르면, 25명이 한 반이라면, 평균 16명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수업 미참여 행태는 수업과 무관한 학습하기 57%, 아예 등교하지 않기 48%였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아니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선행 사교육은 유아 단계, 초등 단계를 지나며 고등학교 단계에 오면 학생이 학교를 아예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학교에 나와도 수업과 무관한 학습을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교실을 황폐하게 만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안 그래도 경쟁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반작용으로 더욱더 사교육 시장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감에 비례해 사교육비 부담은 증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까? 물려 줄 게 없어서 다음 세대에게 살인적인 선행 사교육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학생들로부터 배움의 기쁨을 앗아가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멈출 수 있도록 초등의대방지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좋은교사운동도 전국에 계신 유초중고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의대방지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발언(학부모)

이윤경 학부모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미 초등 의대반 열풍은 초등 학부모들에겐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건이 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로 나뉘는 뿐입니다. 초등 의대반은 학생의 의지가 아닌 부모의 바람이자 강요이고, 경제력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대 의대생이 대치동 학원 초등 의대반을 방문한 '미국 수학 경시대회 푸는 초등 의대 반 수업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초등 의대반에 있던 네 명의 학생들 중엔 1학년 학생도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의사가 왜 되고 싶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116만명 정도가 시청한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수천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에는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나는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 한번 못 다녀봤는데 저 아이들이 부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치동 학원 원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극성인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의 정석으로 미·적분까지 다해서 보낸다"고 말한 기사를 보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등 의대반을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초등 의대반이 주는 폐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행학습으로 인한 공교육 교실 붕괴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은 강요에 의한 아동학대, 사교육비 폭증, 사회 양극화 등 셀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 경쟁 교육 시스템에서는 초등 의대반뿐만 아니라 미취학 의대반까지도 등장할 것입니다. 초등 의대반에 다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영어유치원부터 선행교육을 시작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 학부모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데 내 아이만 제자리에 서 있게 할 부모는 극히 드뭅니다. 언론에서도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때문이라면서 개인 책임으로 몰아 가지만 의대왕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학부모 탓만 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익이 목적인 사교육 기관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손가락질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왕국을 만든 것은 학부모도, 학원도 아닌 우리 사회입니다. 이제는 교육을 이렇게 황

폐화시킨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육을 수단으로 서열화,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학원 관리를 소홀히 하고있는 교육청, 유아와 초등의 선행 사교육을 눈감아 주고 있는 교육부를 질책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초등의대반 금지법을 제정 해야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은 초등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초등 의대반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입시제도의 희생양,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던 민법 915조 징계권을 삭제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처럼, 초등 의대반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죽음의 경쟁 레이스에서 모두가 동시에 멈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초등 의대반을 불법 행위로 규정해 아동에게 놀 권리, 쉼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함께해 주실 것을 국회와 시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 3 발언(학생)

이가은 학생
대일관광고등학교 2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일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가은입니다. 학교를 다니며 선행 학습의 문제점을 느껴온 저는, 최근 초등의대반이란 이름으로 상상을 초월한 선행 사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왜 개선되지 않고 더 심각해져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오늘 출범식의 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초등 3학년 때 처음 학원에 등록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재미는 사라졌습니다. 학원 공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모르는 것을 추가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것을 미리 배우는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천천히 배운 것을 복습하고 문제를 이해할 여유가 없어지니 배우는 재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부해야 할 양은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니 점점 부담만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편하다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놀거나 배워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학원의 진도를 겨우, 겨우 따라가면서 늘 시간마저 부족했기에 도저히 다른 것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하지 못한다는 불만과 답답함 등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따라갈 뿐 다른 선택을 못 했던 것은, 저보다 더 많은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중학교 수업을 공부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학원 과제를 하고 초등학교 문제에 일차방정식을 대입하여 푸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 친구들이 앞서 나가 성장하는 것에 많은 격차를 느껴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가운데는 학원을 다니지 못해 선행 학습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자기가 뒤처진다고 속상해하고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과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한 학기 많아야 한 학년 먼저 선행학습을 했던 경우인데, 최근 학원 광고들의 내용들을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가르친다는 내용의 학원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기에 초등학생에게 고등수학을 가르칠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선행학습에 힘들어 봤던 저는 먼저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 걱정이 들었습니다. 겨우 초등학생, 많아 봐야 13살인 아이들이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고3 수학 등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저 어른들의 지나치게 과한 욕심일 뿐입니다. 이제 제발

멈춰주세요.

그런 와중에도 도를 넘어선 사교육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저의 생각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나친 사교육에서 각자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것과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각각 따로이고 기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친구에게 왜 탄짓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야” “이미 배워서 풀었어” 라는 등의 답변을 합니다. 이미 전부 알고 있으니 수업 시간이 지루하고 그 시간에 더 자고 막상 자야 할 시간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고 학생들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 “너희 이미 학원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시며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는 학교 선생님 흉을 보는 애들도 있습니다. 선생님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손을 들고 안 배웠으니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며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해 줌 그렇지만, 이제 내년이면 고3인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 크는 동생들은 충분히 잠을 자,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배우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며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학생이지만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어 큰 변화가 생겨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현명한 어른으로서, 그 시절을 미리 경험한 인생 선배로서 아이들만의 순수함과 자유, 행복을 어른들의 욕심으로 망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행복해야 할 어린 학생들이 학습 부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발언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